

창조도시의 발전 전략과 과제

1.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도시의 등장배경

- 1988년 창조산업 전략보고서(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출간 이후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확산
- Coy(2000)가 비즈니스 위크지에 “The Creative Economy”라는 글을 실으면서 등장
- Landry(2000) : The Creative City : “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창조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창조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도시의 미래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됨
- Howkins(2002)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경제를 주창함 : 창조경제가 지적재산권에 관계된 법률을 중심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
- Frank & Verhagen(2005) Creativity & the City 창조경제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창조경제 하에서 도시 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창조성을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줌

2. 생산요소로서의 창조성 (Creative becomes an economic power)

- 도시와 창조성 : 창조성이 부각되면서 도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이유는 창조경제의 호순환을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적 구성요소 대부분이 도시라는 환경에 배태되어 있으며, 도시는 창조적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는 다양성, 도시 거리 경관, 주거환경, 공연과 만남으로 시끄러운 buzz 밤거리, 개방적 분위기, 진입비용이 높지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 밀집되어 있는 네트워크, 도시의 진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도시의 창조성을 보는 시각
 - 도시의 창조성을 창조적 계층을 통해 파악 : 창의력을 가진 창조적 인재들이 지닌 창조자본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계층(Creative Class)이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를 구성함

- 도시의 창조성을 창조산업을 통해 파악 :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 재능을 활용해서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 창출의 원천으로 하는 사업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임
- 창조적 계층
 - Florida의 창조적 계층 분류 : 핵심 창조적 계층(컴퓨터 수학관련, 건축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교육, 미술, 디자인, 연예등), 창조적 전문가(관리, 사업 재정운영, 법률관련, 전문직, 판매관리)
 - 창조성 지수 : 미국내 도시들의 창조성 비교를 위한 지수(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 다양성 지수, 창조적 계층을 통해 측정), 세계도시들의 창조성을 위한 지수(인재지수, 기술지수, 사회적 관용지수)
 - 창조성의 지리 : 창조계층은 특정한 입지에 대한 선호를 가짐

3. 창조도시로 발전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반

- 개인적 자질 : 창조적 개인 없이 창조도시가 있을 수 없으며, 창조적 개인이 전략적 지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의지와 리더십 : 창조도시의 민간, 공

공, 기업,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더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성공적인 리더십은 도시와 사람들의 수요를 이해하고 그 비전에 의지, 지력과 에너지를 적정하게 배치함

- 사람들의 다양성과 인재들간의 접근성 : 도시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상상력을 도출하며, 이는 창조성으로 이어짐
- 조직문화 : 혁신적 조직문화는 창조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며, 함께 학습하고,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훈련 과정에서 학습경험을 축적함
- 지역정체성 강화 : 강한 지역정체성은 도시의 자긍심과 활력을 불어넣어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전통과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
- 도시공간과 시설 : 공공 공간은 혁신환경의 심장으로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되며 도심과 부도심은 잠재적으로 일반대중을 위한 장소로, 서로 다른 연령, 사회계층, 종교와 인종, 라이프스타일이 비공식으로 비계획적으로 혼합되고 뒤섞이는 장소임 또한 도심과 공공장소는 이질적인 환경과 접하면 창조적 아이디어가 싹트고 작용하며, 공공 공간에서의 회의, 공개강의, 세미나 등의 토론문화는 창의성을 개발시킴
- 네트워크 역동성 : 네트워크와 창조성

은 공생관계 있으며,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려운 뿌리깊은 네트워킹 능력이 중요함 도시는 중첩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음

4. 우리나라의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과 현 주소

- 세계적으로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국내에는 아직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못함
- 우리나라 문화창출의 중심지로 IT를 비롯한 콘텐츠 사업체의 90% 이상이 몰려있고, 외국인집단거주지역이 생길 만큼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창조도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인지되는 서울시에서도 창조도시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 실시되고 있지 못함
- 광역대도시들의 창조적 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창조산업도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어서 향후 창조도시 육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창조경제의 핵심적 주체이며, 중요한 자산의 창조적 계층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선호하는 거주환경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세계 각 도시들은 이를

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음

5. 결론

- 혁신체계가 각 국가, 도시마다 역사적 경로를 따라 진화해 온 것 같이 창조성, 창조경제 또한 역사특수한 진화의 경로를 가지고 있을 것임
- 해당도시의 산업구조의 특징, 그 사회의 “창조적 계급”의 고유한 특성, 창조적 풍토 및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장치와 창조도시 전략을 구상하여야 함
- 창조경제로 편입되면서, 창조적 인재를 두고 벌어지는 전 지구적 경쟁에서 이들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국적, 다문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의 관용적 풍토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
- 창조도시 발전을 위한 세 축(창조계층, 창조산업, 창조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도시가 위기를 인식, 위기를 탈출하려는 도전의식을 갖고 경쟁의 위협에 대한 도전을 스스로 창출해 나갈 때 창조도시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